

통제될 수 없는 훼손된 신체**허은미 (에이치플럭스 갤러리 디렉터)**

대부분의 기억은 세월이 흐르면 과거의 영역으로 물러나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떤 경험과 기억은 너무나 강렬해서 해소되지 못하고 우리의 몸과 감각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진다. 특히 폭력과 통제의 기억은 자기도 모르게 신체에 각인되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작가 민영현은 이렇게 신체 내부 깊은 곳에 불씨처럼 남아있는 기억이 현재의 경험과 충돌하며 남긴 신체의 감각에 주목한다. 가평에서 나고 자란 작가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유년시절부터 남북분단의 역사가 만든 긴장감 속에 살았다. 마을 곳곳에 있던 검문소와 군용차들, 그리고 전쟁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긴장하는 친할아버지의 서늘한 눈빛과 낮은 목소리. 이런 기억들은 훗날 철원 DMZ 최전방에서 경계병으로 복무하며 선천적으로 예민했던 그의 몸 어딘가에 좀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있었다. 이후 2017년 독일로 이주한 그가 작년 베를린으로 터전을 옮기면서, 이 감각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베를린 장벽의 잔해와 추모비들은 한국DMZ에서 경험한 폭력, 통제, 분단, 긴장의 낯익은 감각을 호출시켰고, 아침마다 조깅하는 템펠호퍼 펠트(Tempelhofer Feld, 구 템펠호프 공항 부지) 공원의 지평선은 철원DMZ 평야의 풍경을 환기시켰다. “폭력과 통제의 환경에서 남겨진 기억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현재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활성화되는 층위로 존재한다”는 작가의 말처럼, 과거의 외상과 베를린의 일상은 그렇게 중첩되며 신체에 각인되었다.

이후에도 그는 신체적, 정신적 각성이 지속적으로 투쟁 혹은 도피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극도로 민감한 과각성(過覺醒, Hypervigilance) 상태에 머물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기억이 얼마나 또렷이 남아 있는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외상의 흔적은 꺼지지 않는 불씨(Embers)처럼 잠복해 있다가 현재의 어떠한 자극과 만나는 순간 다시 깨어난다. 이번 전시 제목인 《Embers》는 민영현 작가의 기억과 상처, 억압된 본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의 몸에 잠재해 있는 상태를 은유한다.

신체에 각인된 폭력과 통제의 기억은 그의 작업에서 검은색과 붉은 색이 주를 이루는 거친 붓터치와 일그러진 신체의 형상으로 드러난다. 화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군인은 용맹스럽고 씩씩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다. 초점을 잃은 눈빛과 기괴하게 일그러진 얼굴, 자기 자신을 향한 총기는 통제의 시스템 속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정신분열적 증상을 보이는 무력한 존재에 가깝다. 철조망 안에 갇혀서 공허한 눈으로 스스로에게 총기를 겨누는 모습은 규율과 통제의 환경에서 영혼이 파괴된 과각성의 상태를 시각화 하는 듯하다. 화면 속 ‘DO NOT ENTER(진입금지),’ SOUTH LIMIT DEMILITARIZED ZONE (남방한계선) 같은 문구들은 신체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경계의 기호로 작동한다.

무력한 군인형상과 대립을 이루며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존재는 인간과 동물이 혼합된 그로테스크한 괴물 형상이다. 분노에 찬 표정으로 총을 들고 있는 괴물들은 인간안에 내재해 있는 폭력성과 동물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동시에 사회적 규범에 통제되지 않는 원초적인 생명력과 본능을 환기시킨다. 인간과 동물, 이성적 통제와 본능적 욕망의 경계에 있는 이 형상은 인간 안에 공존하는 양가성과 모순, 그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작가에게 동물은 억압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회복하고 싶은 생명력, 즉 비난과 동경의 양가적인 시선이 함께 담겨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의 거친 붓터치는 단순한 조형적인 기법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억압된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신체적 행위이자 몸짓에 가깝다. 이러한 몸짓은 각종 이데올로기와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원초적 자유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처럼 보인다. 그의 화면에서 보이는 분열되고 훼손된 기이한 형상들은 자기혐오와 모순, 양가적 감정들, 그리고 DMZ에서의 기억들이 베를린에서의 현재적 감각과 교차하면서 종이와 캔버스라는 물리적 공간 위에서 겹겹이 쌓이고 충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가 보여주는 훼손된 신체와 거친 표면은 인간이 완전하고 통일되고 자율적이라는 근대적 주체관의 신화에 균열을 내고, 불안정함 자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 주체의 상태를 드러낸다. 이는 미술사학자 할 포스터(Hal Foster)가 지적했듯이, 상처와 트라우마의 기억은 매끈한 상징적 이미지로 포섭되는 것을 거부하고 원초적 본능으로서의 실재의 흔적으로 귀환한다는 지점과 깊게 통한다. 결국 작가가 제시하는 일그러진 형상들은 결코 매끈한 이미지로 환원될 수 없는, 끝내 긴장이 해제되지 않는 불안정한 주체의 실재를 직시하게 만든다.

민영현

b.1989 가평출생
베를린에서 거주 및 활동 중

학력 및 군 복무

- 2022-2024 독일 부르크 기비헨슈타인 할레 예술대학 (Burg Giebichenstein Kunsthochschule Halle)
마이스터술러 과정 졸업 (Bruno Raetsch교수 사사)
- 2016-2022 독일 부르크 기비헨슈타인 할레 예술대학 (Burg Giebichenstein Kunsthochschule Halle)
조각과 디플롬 졸업 (Bruno Raetsch교수 사사)
- 2009-2011 대한민국 육군 철원 DMZ(비무장지대) 군 복무
- 2008-2015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예술학부 학사 졸업

수상 및 선정 / 장학

- 2025 제3회 뮌첸베르크 어워드 (Münzenberg-Preis) 콜라주 부문 3위, 베를린
신진작가 미술상 2025 (Förderpreis Junge Kunst) 최종 9인,
라트하우스 갤러리 라이니켄도르프, 베를린
- 2024 - 2025 작센안할트주 졸업생 연구 지원금 (Graduiertenförderung)
독일 부르크 기비헨슈타인 할레 예술대학 (Burg Giebichenstein Kunsthochschule Halle)
- 2024 독일 학술교류처 STIBET 장학금 (Stibet-Stipendium)
독일 부르크 기비헨슈타인 할레 예술대학 (Burg Giebichenstein Kunsthochschule Halle)
- 2018 제13기 아카이브 등록 작가 선정, 소마드로잉센터 (소마미술관), 서울

주요 전시 경력

- 2025 《Kunstwettbewerb 2025》, 빌리 뮌첸베르크 포럼, 베를린 (단체전)
《graduiert ≈ präsentiert》, 부르크 갤러리 임 볼크스파크, 할레 (단체전)
《The Drawing - Personal Definition》, 소마미술관, 서울 (단체전)
《신진작가 미술상 2025(Förderpreis Junge Kunst 2025),
라트하우스 갤러리 라이니켄도르프, 베를린(단체전)
- 2024 《Take off》, 부르크 갤러리 임 볼크스파크, 할레 (단체전)
《영혼의 땀 냄새 (Der Geruch des Seelenschweißes), 부르크 갤러리 임 볼크스파크, 할레(개인전)
《www.kaufmeinekunststuhrhonde.de》, 라움 푸어 그래픽, 할레 (단체전)
- 2023 《광석 - 신체의 탄생 (Erz - Geburt eines Körpers)》, 라우흐하머 주조박물관, 라우흐하머(단체전)
- 2022 《우리가 지금 있는 곳 (Wo wir jetzt sind)》, 유럽연합 작센안할트주 대표부, 브뤼셀, 벨기에(단체전)
《1/2》, 갤러리 f2, 할레(2인전)
《손 크기의 예술 (Hand Große Kunst)》, 보데 박물관, 베를린(단체전)
《가면의 고백 (Bekenntnisse einer Maske)》, 갤러리 f2, 할레(개인전)
- 2019 《Sweet Dreams》, 부르크 갤러리 임 볼크스파크, 할레(단체전)
《나는 진짜 누구인가 (Wer bin ich wirklich)》, 부르크2 갤러리, 할레(개인전)



EMBERS

Younghyun Min

8.28 - 9.19 2026

작가
노트

내 작업은 한국의 DMZ에서의 군사 경험과 베를린으로 이주 후의
역사적 공간 경험을 통해,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이 하나의 '역할'로
재구성되고 분열되는 상태를 다룬다.

폭력과 통제의 환경에서 남겨진 기억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현재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활성화되는 층위로 존재한다.

이러한 기억과 감정이 신체, 언어, 이미지, 물질과 충돌하며 축적되며,
이를 통해 인간과 사회 구조의 취약성과 붕괴를 시각화한다.

민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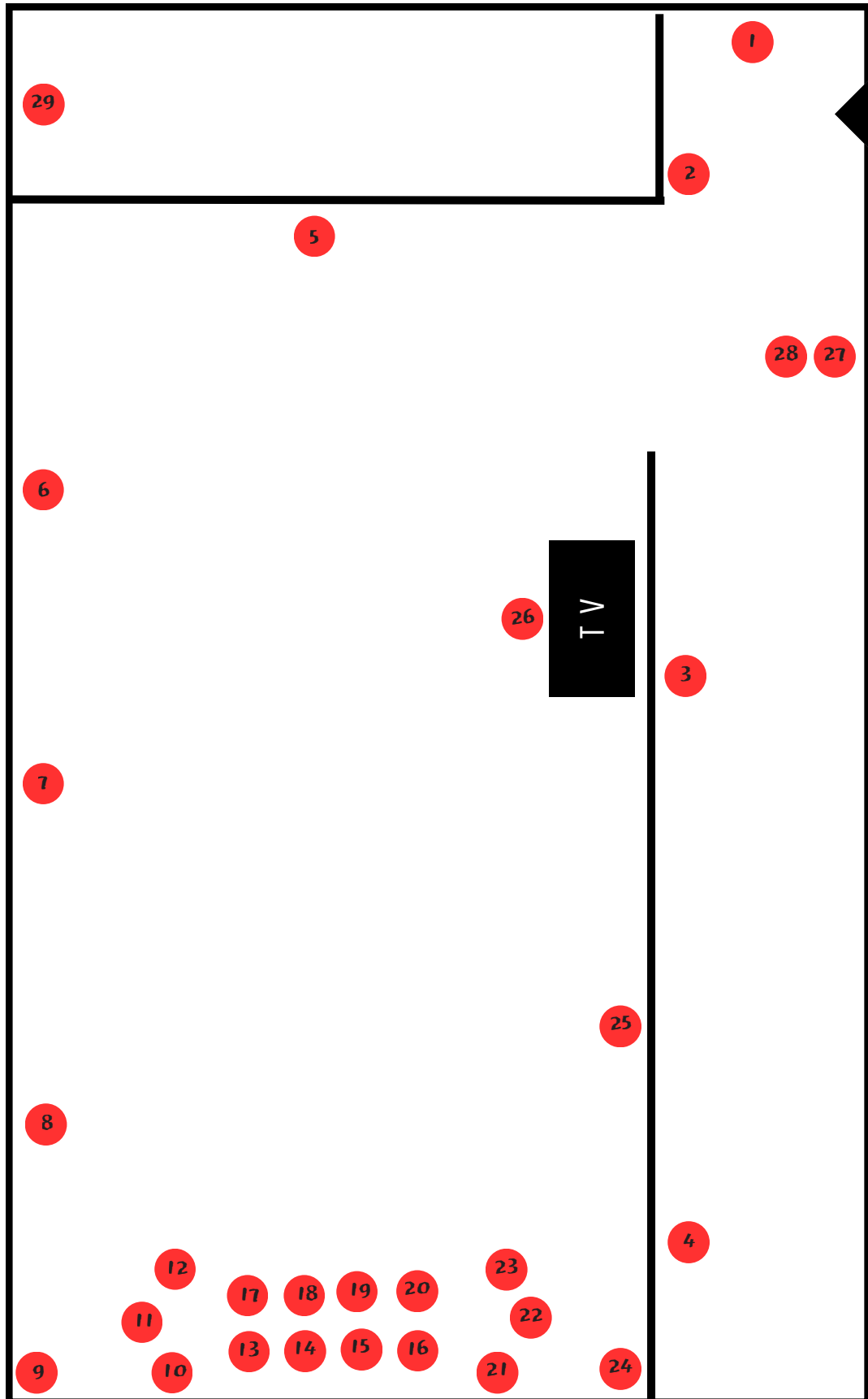




EMBERS

Younghyun Min

8.28 - 9.19 2026 





EMBERS

Younghyun Min

8.28 - 9.19 2026 

1. Limitless Remembrance,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종이 테이프, 콜라주, 100 × 70 cm
2. Don't Panic, Darling,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종이, 30 × 30 cm
3. 내 영혼은 비겁하지 않다, 2026, 목판화 위에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100 × 70 cm
4. 회색병사, 2026, 아크릴 물감, 종이, 28.2 × 21 cm
5. 가장 부드러운 인질 - Transitional Object,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종이 테이프, 콜라주, 130 × 226 cm
6. 권력 뒤에 있는 권력,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62.8 × 43.8 cm
7. 달빛이 비치자 얼굴에 가시가 돋았다,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종이 콜라주, 120 × 145 cm
8. HERZGRIP, 2024, 청동, 철사, 나무 손잡이 11 x 31 x 6.5 cm
9. 뿌리내린 자, 2024, 청동 4 x 10 x 3 cm
10. 비상(飛上),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14 × 21 cm
11. It's Just A Fucking Happening,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14 × 21 cm
12. 진실 거지,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14 × 21 cm
13. The Secret Energy 2,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65 × 50 cm
14. The Secret Energy 3,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65 × 50 cm
15. The Secret Energy 1,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65 × 50 cm
16. The Secret Energy 4,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65 × 50 cm
17. The Secret Energy 6,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종이 테이프, 콜라주, 62.8 × 43.8 cm
18. The Secret Energy 5,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62.8 × 43.8 cm
19. The Secret Energy 7,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62.8 × 43.8 cm
20. The Secret Energy 8,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62.8 × 43.8 cm
21. 365,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14 × 21 cm
22. 거부할 수 없는 운명,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14 × 21 cm
23. 냄새나는 메아리,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콜라주, 14 × 21 cm
24. 자유의 날개를 가진 자, 2024, 청동 6 x 8 x 8 cm
25. 밀리터리 폴리스가 되는 법,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종이 테이프, 콜라주, 100 × 70 cm
26. State of Skin, 2026, 비디오, 5분 30초
27. 돌아가지 못하는 자, 2024, 청동, 납, 철사
28. 두 경계병,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아크릴 물감, 종이 21 x 29.7cm
29. Don't Panic, Darling 2, 2026, 드로잉 잉크(Tusche), 종이, 30 × 30 cm